"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진혼교향곡' 중에서 3악장 '봉헌' 공연 모습.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진혼교향곡(일명 정주영 레퀴엠)'이 지난 11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1,672석)에 울려 퍼졌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2018 서울국제음악제' 폐막 공연에서다. 공연에 참석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콘서트홀 로비에서 쌀쌀한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류재준(49) 작곡가가 만든 '진혼교향곡'은 정주영 설립자의 평안과 안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헌정해 흔히 '정주영 레퀴엠'으로 불린다. 류재준 작곡가는 서울대 작곡학과를 졸업했고, 폴란드 크라쿠프국립음악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86)를 사사했다.

'진혼교향곡'은 정주영 설립자가 소천한 2001년부터 구상을 시작해 7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정주영 설립자를 필두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애쓴 이들을 추모하는 작곡가의 바람이 담겨있다. 류 작곡가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곡이기 때문에 '레퀴엠'이 아니라 '교향곡'이다"라고 설명했다.

미사 형식인 레퀴엠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장대한 교향곡 형식인 이 작품은 2008년 폴란드 최고의 음악축제인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으로 초연됐으며, 당시 1,200명의 관

객이 10분 넘게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해외 음악계에서는 '한국인이 작곡한 세계적인 작품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종신 부수석 지휘자인 그레고리 노박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폴란드 국립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비범한 목소리를 지닌 소프라노 이명주가 참여했고, 국립합창단이 가세했다. 6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100명 가까운 합창단이 콘서트홀 무대를 가득 채워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객을 압도했다.

정주영 설립자에게 헌정한 웅장한 교향곡

'진혼교향곡'은 모두 4악장이고, 연주시간은 43분이다. 소프라노 1명과 혼성합창단, 오케스트라가 비장한 선율과 화성을 들려준다. 합창단과 교향악단, 소프라노의 각 악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됐으며, 특히 레퀴엠 본래의 장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희망을 노래한다.

1악장 '영원한 안식을'은 진혼곡 특유의 엄숙함으로 시작했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주님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오리다'라는 장중한 합창이 울려 퍼졌다. 영웅의 혼들이 이승에서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한 회한이 남아 떠도는 것처럼 음악은 격동의 감정이 교차했다.

2악장 '진노의 날'에서는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이 경쟁하듯이 객석을 몰아쳤다. '진노와 심판의 날이 임하면 다윗과 시빌의 예언 따라 하늘과 땅 모두 재가 되리라'는 '최후 심판의 나팔소리'로 시작해 '기록된 책', '가엾은 나', '위엄과 공포의 왕', '눈물의 날'까지 격정적인 음악이 객석을 휩쓸었다. 이어서 3악장 '봉헌'과 4악장 '거룩하시다'가 웅장하게 펼쳐지다가 환희와 희망을 기원하는 장중한 음악으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공연이 끝나고 저녁 7시 20분부터는 롯데콘서트홀 8층과 9층 로비에서 임성준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과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류재준 작곡가와 연주자, 내빈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이 열렸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17년이 됐다. 오늘은 아버님을 다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연주된 진혼교향곡은 아버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많은 분들에게 바치는 곡이다. 아버님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일구시며 시대적 소임을 다하셨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방대한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역사를 낳은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콘서트홀 로비에 설치된 정주영 설립자의 포토월 앞에서. 오른쪽부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안성기 서울국제음악제 홍보대사.

연주를 감상한 관객들은 "웅장함과 장엄함, 깊은 슬픔과 위로를 두루 갖춘 작품이다. 강하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레퀴엠보다는 영웅들에 대한 찬미곡 같다", "한국전쟁을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영웅들을 기리며 작곡한 곡으로 알고 있다. 긴장감 넘치는 빠른 전개와 평안한 분위기, 다른 레퀴엠에 비해 강렬한 클라이맥스가 인상적이다", "로비 중앙에 설치된 정주영 설립자의 포토월과, 한국전쟁 피난시절 부산에서 찍은 설립자 가족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설립자를 떠올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홍구 · 한덕수 전 총리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진혼교향곡' 공연에 앞서 알토 백재은과 바리톤 김재일이 참여한 가운데 카르워비츠의 '역류하는 물결'과 시마노프스키의 '슬픔의 성모'가 각각 15분과 30분 동안 연주돼 큰 울림을 주었다.